

실용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포스트모더니즘의 실용주의적 근원*

정 상 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과〉

1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게 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다소 천박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지적인 유행을 지속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주지하다시피 이 용어가 문학과 예술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 신학, 사회학, 지리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유행어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를 포착하고 규정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 시대적 구분, 정치적 함의 등 거의 모든 것이 이를 논하는 사람의 관심사, 이데올로기,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심지어 포스트모더니즘을 논하는 모든 비평가와 이론가들이 자기 자신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만들어낸다는 주장¹⁾조차 기본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하고 상반된 정의에 실망하여 어떤 비평가는 “이 용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능한 한 자주 이 말을 사용하라”²⁾고 권고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와 이론가들, 특히 대중매체의 문화비평가들이 보이는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수많은 이들의 흥미를 끌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 용어는 더 이상 예술계와 학계에서만 통용되는 유행어가 아니라 서구사회, 특히 미국사회가 최근 겪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포스트모더니즘을 해석함에 있어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가볍고 쉽게 이 말을 찬양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지적으로 소박하게 보이게 되었다.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후근대사회(postmodern society)의 전반적인 문화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에서 생겨나게 된 가치, 사상, 비전, 생활양식 등의 총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더니즘이 근대사회의 문화였듯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Brian McHale, *Postmodernist Fiction* (London: Methuen, 1987), p.4.

2) Mike Featherstone, “In Pursuit of the Postmodern: An Introduction,” *Theory Culture & Society* 5 (June 1986), p.195에서 재인용.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근대사회의 문화라는 것이다.

보다 제한적인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2차대전 이후 제도화된 모더니즘에 반대하여 서구사회의 문학, 예술 및 학문 분야에서 생겨난 새로운 양식이나 관행, 경향으로서 일부 작가, 예술가, 지식인 및 문화중개인 등 특정한 집단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애당초 1930년대에 페데리코 드 오니스(Federico de Onis)가 모더니즘에 반발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이르러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존 케이지(John Cage), 윌리엄 버러우(William Burroughs), 이هاب 하산(Ihab Hassan), 레즐리 피들러(Leslie Fiedler) 등의 작품이나 비평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건축을 비롯한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의 AT & T 빌딩,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 줄리안 슈나벨(Julian Schnabel)의 신 추상표현주의 미술, 존 바스(John Barth)나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의 소설,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의 신실용주의(new pragmatism), 그리고 스탠리 피쉬(Stanley Fish)의 독자반응비평 등을 포함하여 지칭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유럽간을 왕래하며 예술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와 설명을 추구하는 가운데 후근대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야기시켜 다니엘 벨(Daniel Bell)이나 로티, 제임슨 같은 미국의 이론가 뿐만 아니라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리오타르(Jean-Francois Lyotard), 바티모(Gianni Vattimo), 데리다(Jacques Derrida), 푸코(Michel Foucault),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하버마스(Jurgen Habermas) 등과 같은 유럽의 학자들까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 참여하게 되어 종종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근대사회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까지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에 포함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특성에 대한 평가에는 비평가나 이론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 진리, 이성, 선, 역사(Truth, Reason, Goodness, History)의 거부, 개별성과 다원성의 적극적인 수용, 유연성의 옹호 등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그 근원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초의 미국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실용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진리론, 급진적인 경험론, 그리고 다원적인 우주론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감수성의 선구를 발견할 수 있다. 거의 1세기 정도의 시간차이가 있지만 실용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리얼리티와 진리관에서 공통적인 감수성을 보여준다. 1970년대 이후 “윌리엄 제임스의 복귀”에 대한 선언이나 “반토대주의” 그리고 “이론에 대한 저항”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볼 수 있는 신실용주의의 부상만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이 19세기 말 못지않게 현대 미국사회에 잘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실용주의 철학

3)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전통을 부활하려는 최근의 노력에 관해서는 Frank Lentricchia, “The Return of William James,” *Cultural Critique* 4 (Fall 1986): pp.5-31, W.J.T. Mitchell, ed.

의 핵심적인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리얼리티와 진리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2

실용주의 철학의 창시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에게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의미론, 즉 우리의 사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퍼스에 의하면 어떤 개념의 의미는 그 개념이 갖는 실질적인 결과의 총합이다. 그는 자신의 의미론을 진리와 리얼리티 개념에 적용하면서 탐구자 공동체(community of investigators)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리얼리티 개념이 “본질적으로 공동체 개념과 관련을 맺고 있다”⁴⁾고 주장한다. 퍼스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리얼리티를 알 수 없다. 즉, 우리의 지식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오류와 부정확함이 진리의 한 부분이며 오류가 없는 유일한 진술은 모든 진술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 뿐이라고 주장한다.⁵⁾ 인간은 개인으로서는 지식의 확실성을 획득할 수 없다. 여기에서 공동체 개념이 퍼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탐구자들의 공동체가 끝없이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절대적인 확실성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리얼리티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희망할 수는 있다. 퍼스는 확률의 이론에 의존한다. 예컨대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살아날 가능성이 60퍼센트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⁶⁾ 물론, 같은 사람이 열번 수술을 받아서 6번은 살고 4번은 죽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공동체내에서 동일한 수술을 끝없이 시행할 경우에 열 명가운데 여섯 명은 생존할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그것이 전체 공동체에 적용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길 때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구성원들이 탐구한 결과를 공동체가 확인하거나 거부할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획득한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탐구를 계속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탐구자

Against Theory: Literary Studies and the New Pragmat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그리고 Richard Rorty의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와 *Consequences of Pragmatism: Essays, 1972-198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그리고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등을 참조할 것.

4) H.S. Thayer, ed. *Meaning and Action: Study of American Pragmatism* (Indianapolis: Bobbs-Merrill, 1973), p.68에서 재인용.

5) Peirce, "The Scientific Attitude and Fallibilism," *Philosophical Writings of Peirce*, ed. Justus Buchler (New York: Dover, 1955), pp.58-59.

6) 이 예는 Edward C. Moore, *American Pragmatism: Peirce, James, and Dew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1), pp.65-66에 나옴.

들은 진리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합의하도록 운명지워져 있으며.”⁷⁾ 이 때 진리는 리얼리티를 가리킨다.

실용주의 철학을 세상에 널리 알린 제임스에게 있어서 철학의 기능은 의미의 명료성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세계관이 참일 경우에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너와 나에게 어떠한 분명한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를 찾는 것”⁸⁾이어야 한다. 즉, 그에게 실용주의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에게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제임스에게 진리는 리얼리티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관념이나 믿음의 속성이며, 비교적인 개념이다. 그가 어떤 관념이 진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관념이 구체적인 컨텍스트에서 다른 관념보다 더욱 참되다(truer)는 의미이다. 그 관념이 다른 관념들보다 낫거나 효력이 있다(working)는 것이다. 진리란 한 관념이 더욱 참되어가는 성장의 과정이며 탐구의 과정에서 검증된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하여 검색된다. 따라서 진리는 어떤 관념에 내재한 정체된 속성이 아니며 그 관념에 “발생(happen)”하는 것이다. 관념이 “사건(event)”에 의해 진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⁹⁾ 따라서 진리는 사실상 사건이며 과정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상반된 관념들을 동시에 실제로는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상이한 관념들 가운데 “하나”의 검증과정을 경험할 수 있을 따름이며 한 관념이 다른 관념보다 실제로 더 진리인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¹⁰⁾

따라서 진리는 시간과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진리임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상반된 믿음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믿음이 타당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주어진 순간에 그것은 다른 믿음보다 더 진리이다. 따라서 진리는 영속적이거나 정체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며 “후일 잠재적으로 더 나은 진리(a better truth)가 확립될 것”¹¹⁾을 희망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요컨대 제임스에게 어떤 관념이 리얼리티와 일치한다는 것은 그 관념의 검증과정을 의미한다. 한 관념이 검증될 때 그것은 리얼리티와 일치하며, 그 경우에 그것은 효력이 있으며 진리이다. 여기서 제임스는 우리가 우리의 참된 믿음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우리는 관념이나 믿음을 경험의 영역에 놓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생산하는

7) Peirce, “How to Make Our Ideas Clear,” *Pragmatism: The Classical Writings*, ed. H.S. Thayer (Indianapolis: Hackett, 1982), p.97.

8) James, *Pragmat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30.

9) *Ibid.*, p.97.

10) Douglas Browning, “A Reconstruction of James' Theory of Truth,” (미발표 논문, 1984), p.3.

11) James, *Pragmatism*, p.107.

지 지켜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임스는 한 참된 믿음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어떠한 분명한 차이를 낳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물론 그는 이 경우에 사회적인 관행이나 인습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제임스는 급진적인 경험론자이다. 그는 대상들(things)뿐만 아니라 대상들간의 관계도 대상처럼 실재하며 대상 자체처럼 경험의 일부라고 주장한다.¹²⁾ 예컨대 우리는 두번 연속적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에 두번째 종소리를 첫번째 종소리와 관련하여 경험한다. 마찬가지로 책상과 의자를 한 주어진 순간에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공간에서 서로 관련된 것으로 경험한다.¹³⁾ 제임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경험을 설명할 때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정할 필요가 없으며, 경험을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있다.

제임스는 또한 경험과 경험 대상간의 구분을 해체한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세계와 마찬가지로 실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의 주체로서 리얼리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제임스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며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what really exists is not things made but things in the making)”¹⁴⁾ 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리티는 닫혀진 체계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열려있으며 변화한다. 리얼리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만들어진다. 이는 절대적인 지식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다면 절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더이상 새로운 경험이 불가능한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제임스에게 있어서 모든 지식은 “임시적인(provisional)”¹⁵⁾ 것이다. 만약 궁극적인 리얼리티가 존재한다면 그것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그것으로의 근접일 따름이다. 우리는 리얼리티의 “경계”나 “가장자리”로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¹⁶⁾

따라서 제임스는 세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을 거부한다. 우주의 진화는 완결되지 않았으며 세계는 “모든 곳에서, 특히 사고하는 인간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다.¹⁷⁾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인간이 그것의 완성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여지가 있다. 이 세계의 진화는 부분적으로는 인간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인간의 가치가 보존되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실용주의를 사회이론으로 발전시킨 듀이(John Dewey)의 인식론은 인식 과정은 주체에

12) James, *The Meaning of Tru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7.

13) Moore, *William Jame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6), p.136.

14) James, *A Pluralist Univers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p.117.

15) James, *The Meaning of Truth*, p.88.

16) *Ibid.*, p.69.

17) James, *Pragmatism*, p.124.

게서 일어나고 객체는 인식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인식론을 거부한다. 듀이에 따르면 앎의 과정은 유기체와 그의 환경간의 거래(transaction)이다. 앎은 앎의 주체에게만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며 앎의 대상은 앎의 과정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듀이의 체계에서 주체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대상을 단지 복사하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대상에 존재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된다. 알게된 대상은 관념과 대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행위의 결과”¹⁸⁾로 존재한다. 그리고 앎의 주체도 앎의 과정에서 변형된다. 전체 상황이 변한다. 이는 지식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끝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다.

실용주의의 리얼리티, 진리, 지식 개념은 확실정보보다는 확률, 실체보다는 과정, 보편성보다는 개별성, 그리고 단일성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반사실주의적이며 인식론적으로는 반토대주의적이다. 그것은 또한 인식과정에서 인식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능한 최선의 진리를 결정하는 데에 공동체의 역할을 인정한다.

3

양자역학의 여러 개념은 실용주의의 개념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양자 역학이 나온지 50년이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일반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들이 대량으로 출판된 사실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와 함께 양자역학의 개념이 현대의 무정형적인 문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학자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무엇인가에 반응하면서 양자 역학에 대한 개설서를 출판하는 것이다. 보어(Niels Bohr)의 상보성(complementarity)의 원리에 따르면 관찰자의 측정수단에 따라 빛이 파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입자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하이젠버그(Werner Heisenberg)의 불확실성(uncertainty)의 원리는 입자의 위치를 알게되면 그것이 입자의 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험적으로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입자의 행위를 변화시킨다. 관찰자가 위치에 대한 지식을 극대화하면 운동에 관한 지식은 극소화된다. 듀이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은 관찰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양자역학은 리얼리티 자체의 포착하기 힘든 속성과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음을 미립자 수준에서 부각시켰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그 이전에 우주 차원에서 객관적인 리얼리티의 개념에 도전했던 것과 함께 우리의 제한적인 인식으로부터

18) John Dewey, *The Quest for Certainty: A Study of the Relation of Knowledge and Ac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29), p.26.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리얼리티의 개념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과학자들이 근본적인 리얼리티에 대한 확실성의 상실에 대처한 한 가지 방식은 확률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개별적인 입자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만 입자의 전체 집단은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확률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물질의 파장-입자 이중성 중에서 파장 부분은 확률적인 파장이 된다.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버그 이후 과학이 “이 세계에 대한 참된 그림(a true picture of the world)”¹⁹⁾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는 불가능해졌다. 물리학자들은 점점 전자 궤도 등과 같은 것을 리얼리티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가능성,”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보다 작은 입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허구적인 인공물로 여기는데 익숙해졌다고 하이젠버그는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진정한 문제라고 덧붙였다.²⁰⁾

리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언어에 의하여 제약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 세계 자체의 속성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얼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식은 과학자나 실용주의 철학자들처럼 인식 과정에서 인식자나 인식자들의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다른 방식은 하이젠버그가 시사하듯이 우리가 가진 개념의 만들어진, 따라서 허구적인 속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문화 서술에 대한 최근 민족지학자(ethnographer)들의 견해는 후자의 전략에 대한 좋은 보기를 제공한다. 문화가 파편적이며, 역사적으로 우연에 의한 구조물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 조지 마커스(George Marcus), 스티븐 타일러(Stephen Tyler) 등이 옹호하는 새로운 민족지학은 문화적인 차이에 매우 민감하며 한 문화내에서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경험에 관심을 가진다. 인류학적인 서술이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투명한 재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민족지학은 객관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연구의 중심에 인류학자를 위치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시킴으로써 인류학자의 단일한 권위를 탈신비화한다. 클리포드 기어즈(Clifford Geertz)의 주장대로 인류학적 서술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something made)라는 의미에서 허구이다.”²¹⁾

기어즈의 주장은 인류학처럼 민감하게 인식되지는 않지만 사회학이나 경제학과 같은 다

19) Cynthia Eagle Russett, *Darwin in America: The Intellectual Response 1865-1912*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 1976), p.20에서 재인용.

20) Werner Heisenberg, *Physics and Philosophy: The Revolution in Modern Physic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8), p.181, 174.

21)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1973), p.15.

른 사회과학 분야에도 적용된다. 사회학과 경제학에서 허구성에 대한 강조는 총체성과 단일성에 대한 추구를 회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노먼 덴진(Norman Denzin)은 미국의 사회학이 여전히 “총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거대한 이론”을 개발하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한다.²²⁾ 덴진에 의하면 총체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더니즘적인 충동은 사회학자들로 하여금 갈등이론, 신기능주의, 세계체제 이론 등과 같은 전통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작업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컴퓨터와 정보 중심의 후근대사회의 경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덴진은 사회이론가들이 언어와 인간주체의 문제, 권력과 지식의 관계, 그리고 지식이 지식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경제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차이의 옹호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 경제학은 여전히 모더니즘적인 과학주의에 입각하여 시험가능한 가설들을 입증하고 가설과 법칙의 발견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 분야에 본질적인 것이 없다”²⁴⁾는 저항의 목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려온다. 잭 아마리글리오(Jack Amariglio), 스티븐 레즈닉(Stephen Resnick) 등은 경제학에서 방법론, 개념, 담화의 대상이 단일하게 보이는 것은 경제학 분야를 통제하려는 패권적 전략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경제이론의 본질에 대한 추구를 버리고 상이하고 양립할 수 없는 학과간의 다양성과 논란을 인정함으로써 “비본질적인(nonessentialist)” 전통을 세우자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은 모두 “혼성 인물(composite characters)”를 창조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계층이나 민족적 혹은 경제적 집단을 재현하는 자는[소설가와 마찬가지로] 인물묘사(characterization)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사회과학자들의 사실 구성은 소설가보다 덜 개인적이고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작업도 상당한 정도로 “이야기하기(storytelling)”²⁶⁾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성(narrativity)에 대해서는 역사분야에서도 늘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배적인 객관성의 이데올로기는 사료에 기록된 대로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서술성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역사적인 기록에 공

22) Norman K. Denzin,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Ea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89), p.52.

23) Denzin, “Postmodern Social Theory,” *Sociological Theory* 4 (Fall 1986), pp.194-204.

24) Jack Amariglio, Stephen Resnick, and Richard Wolff, “Division and Difference in the ‘Discipline’ of Economics,” *Critical Inquiry* 17 (Autumn 1990), p.137.

25) E.L. Doctorow, Larry McCaffery와의 대담. *Anything Can Happen: Interviews with Contemporary American Novelists*, eds. Tom LeClair and Larry McCaffer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101.

26) Doctorow, “False Documents,” *E.L. Doctorow: Essays and Conversations*, ed. Richard Trenner (Princeton: Ontario Review Press, 1983), p.26.

백이 있을 경우 그것을 채우는 그럴듯한 수단으로만 여긴다. 이러한 전통에 반대하여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나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같은 이론지향적인 역사가들은 서술성을 역사기술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 그들은 해석전략을 명시적이고 의식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화이트에 의하면 서술 방법으로 볼 때 역사와 소설은 별로 차이가 없다.²⁷⁾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널리즘에서도 객관성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치열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디어 연구자들은 뉴스기사의 내용이 정치적인 전제를 숨기고 있으며 뉴스기사의 형태가 관찰가능한 사실, 갈등, 사건에 대한 편견을 함축하며 뉴스 수집과정의 리얼리티에 대한 공식적인 관점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 그리고 기자와 기자가 속한 조직의 관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슈드슨(Michael Shudson)은 사실이라는 것이 “세상자체의 여러 측면들”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타당성을 부여받은 진술”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객관성은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언론계가 정당하다고 규정한 “규칙과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된다.²⁸⁾

구조물의 인공성을 벗기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경향은 예술제도론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아더 단토(Arthur C. Danto), 조지 디키(George Dickie), 하워드 베커(Howard S. Becker) 같은 제도론자들은 예술적 가치가 사회적 인습이나 관행과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예술을 천재나 영원한 미와 관련된 특별한 종류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은 특정한 사람들이 행하는 제도화된 행위이다. 단토는 어떤 사물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예술계라고 주장하며 예술계를 “예술 이론의 분위기, 예술사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한다.²⁹⁾ 단토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브릴로 상자(Brillo Carton)」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한다. 만약 예술이 모방이라는 주장을 수용한다면 워홀의 상자는 예술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다른 이론, 다시 말해 예술이 모방이 아니고 새로운 형식의 창조라는 이론을 받아들이면 동일한 브릴로 상자가 예술 작품이 된다. 따라서 결국 워홀의 상자와 보통 상자를 구별하도록 만드는 것은 예술 이론이라고 단토는 주장한다. 단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디키는 공장에서 제조되어 일반 욕실에 설치된 변기나 산업박람회 전시된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듀상(Marcel Duchamp)이 「파운틴(Fountain)」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변기

27) Hayden White, *Tropics of Discourse: Essays in Cultural Critic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p.122.

28) Michael Schudson,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 (New York: Basic Books, 1978), p.7.

29) Arthur C. Danto, "The Artworld," *Journal of Philosophy* 61 (1964), p.580.

를 미술 전람회에 전시했듯이 예술가가 그것을 미술 전시회에 제출하거나 박물관의 관리자가 그것을 박물관에 전시할 때 그 똑같은 변기는 예술품이 된다. 결국 예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예술계이다. 디키에게 예술계란 전통, 관행, 관습의 복합적인 망을 포함하는 느슨하게 구축된 사회적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관행과 관습이 예술의 특징을 규정한다.³⁰⁾

이렇게 본다면 예술 세계는 예술적 생산과 문화적 투쟁의 장(場)이 된다. 예술 세계는 예술적 기준을 정하고, 미적 가치를 창조하고 재생산하며, 생산과 분배, 소비를 조직한다. 그것은 예술가와 작품을 사회속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예술 작품을 영속적으로 만드는 것은 초월적 미나 보편적 진실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예술 작품의 지속적인 명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계급 또는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술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다락방에서 고립되어 작업하는 고독한 예술가의 이미지를 신비화하고 예술성에 대한 소박한 생각들을 교정한다. 그것은 또한 문화적 영역에서 행위자가 처해 있는 관계망과 정치, 경제의 복합적 상호 작용을 직시하도록 도와준다.

제도론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예술작품에서 그 작품이 수용되는 컨텍스트로 옮긴다. 문학이론에서 이러한 관심의 전환은 독자반응비평의 등장에서 가장 잘 예시된다. 독자반응비평가들은 신비평가들의 텍스트자체에 대한 오랜 믿음을 비판하고 텍스트의 영향과 결과를 그 의미로 받아들인다. 스탠리 피쉬는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의 해석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독자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대상이 아니라 독자가 참여하여 독자에게 “발생하는(happen)” 것, 즉 “사건(event)”이기 때문이다.³¹⁾ 그는 저자의 의도는 텍스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³²⁾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가 독서과정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한 해석전략에 의하여 결정된다. 독자는 해석전략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그는 모든 텍스트에 어떠한 의미든지 부여할 수 있다. 텍스트의 동일성은 그 의미의 동일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의미의 동일성은 독자가 택한 해석전략의 동일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두 텍스트가 같은 의미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지면 이 두 텍스트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과 독립하여 텍스트는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텍스트는 그 자체로는 정체가 규정되지 않는다. 해석 행위 이전에는 모든 텍스트는 무정형이다. 따라서 피쉬는 “같거나 다른 텍스트라는 개념은 허구”라고 주장한다.³³⁾

30) George Dickie, *Art and Aesthetics: An Institutional Analysis* (Ithaca: Cornell, 1974), pp.101-08.

31) Stanley Fish, "Literature in the Reader: Affective Stylistics," *New Literary History* 7 (1976), p.125.

32) Fish, "Interpreting the Variorum," *Critical Inquiry* 2 (1976), p.481.

피쉬의 이론은 독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지만 해석의 무정부상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쉬는 “해석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라는 개념을 도입한다.³⁴⁾ 서로 다른 독자들이 해석 전략을 공유하면 그들은 해석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피쉬는 주장한다. 동일한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해석전략을 공유하는 해석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동일한 의미가 생산된다는 뜻이다. 해석공동체의 해석이 무정형의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해석행위는 독서가 아니라 글쓰기 행위가 된다.

피쉬는 자신의 이론을 텍스트 해석의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만든 모델의 선택은 객관성과 해석간의 선택이 아니라, 해석임을 인식하고 있는 해석과 그렇지 못한 해석간의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자신의 해석이 “단지 또다른 하나의 해석”³⁵⁾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그는 그것이 임시적이고 시간과 상황에 의하여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4

텍스트로부터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관심을 옮기는 것은 많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피쉬처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객관적인 리얼리티보다는 리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반응에 관심을 두며, 극단적인 상대성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과정에서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적 관행과 인습의 컨텍스트를 회피할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총체성, 절대성, 토대, 초월성과 같은 개념을 의심한다. 대신에 그들은 개별성, 상대성, 반토대, 컨텍스트를 받아들인다. 그들은 우리의 지식이 컨텍스트에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것의 허구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철학, 과학, 예술,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와 리얼리티 자체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성향은 지적·문화적 영역의 모든 중요한 부문에 스며있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질서와 기원에 대한 추구를 조롱하고 미결정성과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우주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 비판적인 순간에는 지배적인 인식론적 인습과 이데올로기를 노출시키며 따라서 문화의 영역에서 파위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감수성은 그것이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 자체를 결국 수용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

33) *Ibid.*, p.482.

34) *Ibid.*, pp.483-84.

35) *Ibid.*, p.480.

니스트들은 한 문화 내에서 작업을 하며, 그들은 그들이 반대하는 체계에 자신들이 연루될 수 밖에 없다고 믿는 까닭에 그 체계와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과 세상이란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서는 실제로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방관자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한다.³⁶⁾ 그들은 사회적인 행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합되고 단일한 비전이나 목적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감수성에 건설적인 덕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부각되는 이 세계의 미결정성과 우연성은 20세기 후반기를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불안정한 성격을 반영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우리가 후근대사회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깔끔하고 손쉬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 문제의 복잡성을 밝혀주는 것은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여겨진다. 문제의 복잡성은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식상의 복잡성을 선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은 그것이 극단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공감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36)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이러한 태도가 전통적인 실용주의자들과의 차이점이다. 제임스나 듀이의 실용주의의 핵심적인 명제는 단순히 이 세계를 관찰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